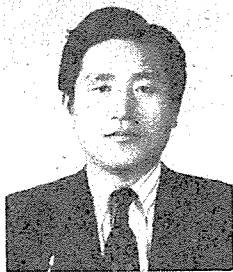




해외파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건강상식



근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목적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외 장기체류자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근로자들이어서

민 득 영

아무래도 좋지않은 환경속에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약 17여만명 가량이 주로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북부지역등 40여개의 개발도상 국가에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아열대 또는 열대지역에 속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의 풍

토병인 열대병, 특히 기생충병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몇 가지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별 열대병의 분포

열대병이라함은 연평균 기온이 20℃이상인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그곳의 풍토병을 말한다. 더운 기

후조건때문에 병원체를 옮길수 있는 모기나 파리등 매개체의 번식이 용이하여 많은 질병들이 끊이지 않고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진출해 있는 각 지역별 주요 질병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소진탁著 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 “熱帶病” 참조)

◁ 각 지역별 주요 질병분포 ▷

| 지 역 | 나 라 | 중 요 질 병 |
|-----------|---|---|
| 중 동 아 세 아 | 바레인, 이란, 이락,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터키 등 | 열대말라리아, 삼일열말라리아, 칼라아자르, 피부리슈마니아병, 빌하르쯔주혈흡충병, 만손주혈흡충병 등 |
| 인 도 지 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네팔, 스리랑카, 말디브군도 등 | 열대열말라리아, 삼일열말라리아, 칼라아자르, 피부리슈마니아병, 사상충병(반크롭트사상충병, 말레이사상충병), 뎅기열, 유행성 출혈열, 콜레라 등 |
| 동 남 아 세 아 | 버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필립핀, 홍콩, 대만, 유구열도 등 | 열대열말라리아, 삼일열말라리아, 칼라아자르, 일본주혈흡충병, 간흡충병, 폐흡충병, 사상충병(반크롭트사상충병, 말레이사상충병) 콜레라, 케스트 등 |
| 북부아프리카 |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아, 리비아, 튀니지아, 에집트, 에티오피아, 소말리, 디보티공화국, 수단 등 | 열대열말라리아, 피부리슈마니아병, 빌하르쯔주혈흡충병, 사상충병, 나병, 수면병 등 |
| 중부아프리카 | 세네갈, 말리, 니제르, 차드, 잠비아, 기니아, 리베리아, 상아해안,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앙골라, 우간다, 자이르, 루안다, 부룬디,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잔지발 등 | 열대열말라리아, 수면병, 피부리슈마니아병, 사상충병, 회선사상충병, 빌하르쯔주혈흡충병, 이질아메바, 케스트, 재귀열, 발진티프스, 황열, 나병 등 |
| 남부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바수토랜드,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 등 | (중부아프리카와 비슷한 분포) |

우리나라에 유입(流入)된

열대병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열대병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으나 각 학계(學界)에 보고되었던 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 삼일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원형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열이 높고 오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열대열말라리아는 증상이 심하며 도처에 퍼져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60 년도 초까지 말라리아(삼일열뿐)가 거의 박멸되었으나 월남전쟁기간중 파병되었던 군인들간에 많이 감염되었던 보고가 있었다. 이후 해외파견근로자들 또는 단기간 해외여행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우가 꽤 많았다. 모기가 전파매개체이다.

2. 빌하르쯔주혈흡충병

필자등이 지금까지 5예를 찾아내어 치료하였는데 특히 이집트나 중동지역에 흔히 있는 병으로 개천이나 웅덩이에서 목욕할 때 어린벌레가 피부를 뚫고 들어와 방광근처의 혈관에 기생하여 피오줌을 누게 되고 심하면 방광염, 더러는 방광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아무데서나 목욕하는 것을 피해야한다.

3. 피부리슈마니아병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모두

13예이나 감염되어 자연히 치료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프리카지방이나 중동지방, 인도지방에 흔한 것으로 피부가 혈제되는 기생충병이다. 흡혈하는 샌드플라이(Sandfly)라는 파리가 전파매개체이다.

4. 피부병

많은 사람이 피부병을 앓았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으나 주로 족부백선증(무좀)이 가장 많다. 이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의 피부나 발가락사이에 생기는 피부병으로 우리나라에도 흔하다. 더운지방에서는 2차적인 세균의 감염으로 뾰루기 고생하는 수가 많다. 깨끗이 씻고 말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들었으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귀국한 사람들중 현지 파견근무중 앓았다가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은 점으로보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병들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들이어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귀국하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전문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필자등이 치료한 빌하르쯔주혈흡충병환자들도 여러 병원을 거친 후에 필자를 방문하여 확진을 받고 치유되었다.

조심해야 될 점

1. 출국전

무엇보다도 출국전에 정밀신체검사를 해서 해외취업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간혹 해외취업을 위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숨기고 출국했다가 고생하는 수가 많다. 이런 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비슷하다. 만성적인 질병, 즉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폐결핵,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더운 지방에 취업해서는 안된다.

2. 해외근무시

해외근무때는 무엇보다도 체류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의 풍토병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더운 곳일수록 기생충병이나 질병들이 많기때문에 풍토병을 알아보고 그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대체로 열대병의 매개체는 곤충들이 대부분이어서 모기, 파리, 빈대 등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살충제를 쓰거나 방충망을 이용하도록하고 작업중에는 피부에 기피제를 발라야 한다. 또 아무데서나 목욕하지 않고, 음료수나 음식물은 끓이거나 조리해서 먹어야한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예방에 힘을 쓰는데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일단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의무실을 방문하여 (의사가 없는 곳도 있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 중도귀국을 염려해서 몸의 이상을 감추는 것은 병을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더운 지방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모된 염분을 보충하기위해 소금을 꼭 보충해서 섭취해야하며 햇볕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 일상병에 대한 예방책도 강구해야한다. 또 너무 덥다고 냉방장치가 된 밀폐된 방에 오래 있을 때에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간혹 통풍을 시키고 적당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

3. 귀국 후

귀국후 역시 즉시 정밀신체검사를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에 번질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새로운 풍토병이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보았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국가, 기업체, 의료인에 의해 해외파견근로자나 여행자를 위해 출국전에 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발병시 치료하며 귀국후에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전염병의 예방과 국내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
교수·의박)

(연세의대 열대의학연구소)